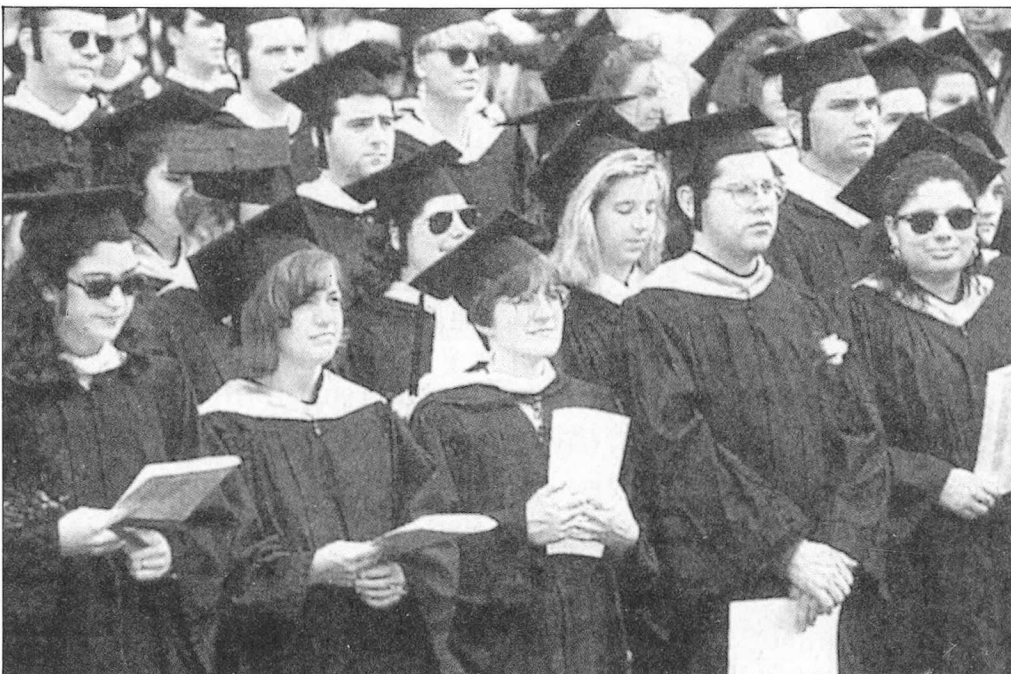


하버드법대 교수채용 뒷이야기

법학교육의 고발장 「도전받는 권위」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미국 대학생의 졸업식 모습. 유색인종이 하버드 법대의 교수가 되기는 힘들다고 한다.

집권세대 전후세대 헌법학자 가운데 가장 걸출한 교수로 생각되는 알렉산더 비켈은 모교인 하버드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사람이다. 아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를 빼고는 ‘하버드 법학 논문집’(The Harvard Law Review)을 이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하버드 대학교수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고들 한다. 즉 그것이 깊숙한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예일대학에서 종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비켈은 열정적으로, ‘가장 깔끔한’ 하버드 법대 교수들—그들의 학문적 지위나 법학계 학술지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변호사 경력에 따라 구성된 집단—의 채용과정을 변호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그러한 능력주의적 기준들은 민주주의적 원칙의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되었겠다. 하기는 그의 스승인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교수는 하버드 법과대학의 ‘위대한 점’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능력과 성격을 제외하고는 집안의 재산, 피부색, 종교 따위는 특별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즈음에 데릭 벨(Derrick Bell)의 눈길을 끄는 ‘털어놓는 이야기」 「도전받는 권위」(“CONFRONTING AUTHORITY : reflections of an Ardent Protester”, 195 pp. Boston : Beacon Press.)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동안 프랑크푸르터 교수적 정의(定義)에 덤벼들었던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에서 보자면 벨의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교훈을 남길만한 도전의 기록이다. 또 달리, 이것보다 중요한 측면으로는 날카로운 법학교육에 대한 고발장으로도 읽힌다. 프랑크푸르터 교수의 자량—피부색과 경제적 처지는 전혀 교육받을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다—과는 달리 저자 벨은 인종, 계급,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교육받을 기회를 ‘결정짓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악한 서클의 동종교배

외부 사람들에게도 법과대학이

채용하고 있는 기준들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어떤 최고의 법과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곧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어떤 졸업생이 대학교수가 될 기회는 법과대학 1학년 동안의 성적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학년 때의 학급 성적이 일반적으로 법학논문 편집자들을 결정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졸업후 법조인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자 벨의 책에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윈 그리스월드 같은 하버드맨도 1968년 하버드 법대 학장직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교수채용 과정은 어떤 ‘사악한 서클’ 출신으로 짜여진다고 슬회한 적이 있다. 법과대학에서 깃발을 날리는 교수들은 법학 논문집의 지도교수 또는 최고 편집책임자로 임명되며 또한 최고 법원의 법복을 입는 데에도 그것과 동일한 자격조건이 선호된다고도 말했다. “우리 교수들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계속적인 동종교배(inbreeding)의 과정이며, 따라서 세월이 갈수록 쓸만한 종자는 적어지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벨은 이런 사이클을 부수기로 작정하고 법과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효과적인 가르침 또는 중요한 학술 습득과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생산적이고 자극적인 학자로서 저자는 1970년대 후반 법률학계에 새로운 분야—비판적 인종이론을 개척하는데 공헌했으며, 실제현장에서 그 법률과 인종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해온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경력은 그를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 같다. 저자 벨은 원래 법학 교수가 되려는 시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1969년 인종차별 철폐 조항이 겨우 통과되었을 때 하버드 법대는 첫 번째 조치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즉 흑인)을 “흑인 학생을 위한 지도교수이자 성공 모델” 차원에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벨은 여기에 지원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나는 흑인 대표임을 원치 않으며 학교는 여타 소수인종 출신 법조인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교수 충원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다음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종신 교수가 되었지만 그 동안 오직 유색인종으로는 고작 흑인들만이 채용되었다.

미국 대학에 만연한 엘리트주의

여기에 실망한 벨은 1980년 오래된 대학의 학장 제의를 받아들인다. 거기서 그는 “엘리트주의적 채용기준은 하버드와 같은 학교들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현상임”을 알고는 경악하였다. 그의 새로운 동료들도 모두 명문 법대의 수재들이었다. 그들이 텍사스 법과대학 출신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데 다들 반대하는 것을 보고난 다음 그는 진절머리를 내고 하버드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서 벨은 교수들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더욱 새롭게 하였다.

이때부터 하버드는 “흑인 여성교수가 교수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유색 여성들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 몫으로 1990년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유색 여성교수를 영구적으로 채용한다면 자기는 하버드를 떠나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인종차별 비판이론가로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해에 하버드에 교환교수로 왔던 흑인 여성 레기나 오스틴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선언을 했다고 이 책은 전한다. 벨의 보고에 따르면 채용 위원회는 그녀가 “자격에 완전히 합당한지 애매한 인물”이며 “논문들이 학술적이지 못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다음 해에도 그의 동료들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재직중인 흑인여성으로서 하버드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아니타 알멘의 채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정교수들(limited faculties)은 두 해 동안 계속해서 학교를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버드는 현재 벨 교수에게 강의를 하러 돌아오든지 아니면 교수직을 그만두든지 하라는 재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컴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파면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나의 항의는 일반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학 교수로 생각하는 하버드 교수자리를 걸고 저지른 것이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

벨이 스스로도 인정하듯 독자들은 저자가 사건들을 “지나치게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그는 그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의 항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건 하버드 법대는 아직도 한 사람의 유색 여성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벨의 결론은 확신에 차 있다. “특히 오늘날 탐욕스러운 이기심으로 해서 더러운 명성이 수많은 개업 변호사 사무실마다 쌓여가는 현실속에서, 공격으로 신뢰받는 법조인을 훈련해야 한다는 요청은 우

리에게 법과대학 자체가 채용과정에서 무시하고 있는 기술들과 경험들을 강조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러 경제개혁의 실상과 허상 「잃어버린 기회」

그 누구도 러시아 경제의 개혁이 쉬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1990년 이후 생산량은 거의 5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형편없이 낙후되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치솟고 범죄 발생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골목에서 시장의 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민주주의 제도도 광범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또한 러시아이기도 하다. 이렇게 혼동스런 모습들이 개혁의 성과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내리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마셜 골드만(Marshall I. Goldman)은 오래동안 소련전문가로 활동해온 사람인데 최근 상세한 새 책 「잃어버린 기회」(“LOST OPPORTUNITY: Why Economic Reforms in Russia Have Not Worked”, 290 pp. New York: W.W Norton & Company.)에서 그는 우선적으로 ‘술잔의 반이 비었다’는 관점에서

서 경제개혁과 관련된 러시아의 경험들을 반추하고 있다. 부제 “러시아에서의 경제개혁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와는 좀 색다르게 이 책에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는 않다.

「잃어버린 기회」의 첫번째 부분은 러시아 정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 사이의 관계와 1991년 8월의 쿠데타 이전의 개혁 프로그램 진전 상황, 그리고 옐친이 1992년 개혁을 시작하면서 총책임을 맡겼던 예고르 가이다르가 선택했던 자유시장경제로의 급격하고 놀라운 전환에 대해 날카롭고 짤막하게 요점을 지적해 낸다. 골드만은 두번째 부분에서 경제개혁에 대해 꼼꼼하게 논의하면서, 시장경제로의 변화 와중에 빚어졌던 몇가지 중대한 실책에 대해 낱말이 따져본다.

셋째 부분은 이 책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2차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의 경험을 회고하고, 또 최근의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경우를 추적하는데 이들은 다 러시아의 개혁과정에 참고가 될 만한 가이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충정의 표현들이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러시아의 경우로 되돌아와서 개혁 문제가 러시아의 문화와, 또 정치사와 얼마나 흥미롭게 얽혀 있는지를 파 보인다.

러시아는 왜 개혁이 힘든가

그런데 특히 저자가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개혁을 구분하여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 생각컨대 이 둘을 뭉뚱그

리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라면 더욱 생동감있고, 대신에 중첩되지 않지 않았을까 한다. 이점은 역시나 저자의 개혁에 대한 제안들도 영감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몇몇은 한 때는 환호작약했던 조치였겠지만 후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개혁을 점진적 변화와 변화 사이의 선택을 둘러싼 전쟁으로 끌고간다. 그는 점진주의적 접근방법의 옹호자인데, 구체적으로 세계경제체제로의 개방과 가격자유화에 앞서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독점생산체제를 털어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도 인정하듯이 1991년 가을 쿠데타의 후유증으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미 점진적 변화는 더이상 선택 조건일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냉전의 종식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마무리 지은 인물이다. 그러나 장면을 경제개혁으로 돌렸을 때 그는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한 사람이다. 1985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그는 소비에트 경제체제를 시장에 기초한 체제로 방향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거의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골드만은 이것을 바로 첫번째 기회상실이었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고르바초프는 예산과정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1990년대 초반 국내 총생산의 10퍼센트 이상이 인플레이로 인해 날아가 버리는 재정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러시아 경제혼란에 이바지한 셈이었다는 것이다.

옐친은 러시아를 서방 스타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을 훨씬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가이다르 내각의 시장개혁 프로그램은 실행되다가 말다가 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시기에 중지되고 말았다. 옐친은 완전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그의 기술을 써먹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 한때 그는 러시아의 소비경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개조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나아갔지만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그의 인식은 고르바초프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경제정책 실패한 옐친의 고뇌

1992년 옐친과 가이다르가 주도한 러시아 개혁조치들은 폴란드의 개혁조치를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폴란드에 비해 훨씬 못미쳤다. 가격자유화조치는 공급팽창을 자극하리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골드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공급의 독점상태에서 보다 높은 가격은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상점에 길게 늘어선 줄을 사라지게 만들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가게들에는 물건이 쌓였지만 오른 가격을 지불하고 살 만한 사람들은 드물었다. 이에 반해 폴란드는 이미 농업과 무역부문에서 사기업적 요소들이 현저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상당히 분권화된 산업부문과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이다르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를 통제하겠다는 우선 목표에서도 실패

했다. 1991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근 20퍼센트 가깝게 늘어났고 중앙은행은 쓰러지는 기업들에 다 너무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을 해주었고 러시아내 외환가치가 폭등함에 따라 루블화의 가치는 붕괴해 버리고 말았다. 골드만은 이것이 두번째로 잃어버린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정치혁명의 와중에서 실행되는 그 어느 정책보다도 어려운 것이며, 특히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관료들과 공기업 경영자들의 노골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서구적 가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문화속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모스크바 당국이 국가경제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와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또한 군산복합체의 위축으로 표현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인종분규와 중앙통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강력한 원심력적인 힘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골드만은 이러한 어려운 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는 또한 가이다르와 같은 개혁주의자들과 옐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은 아마도 평탄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옐친의 권력공고화는 개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어 · 칸 · 일 · 올 · 옛 · 슴 · 니 · 더

- 원고 / 과학동화 · 전래동화 · 창작동화 집필.
- '52권 발행'
- 방송대본을 소설로, 만화를 소년소설로, 영화를 동화로 각색. '20권 발행'
- 기획 / 외국도서의 출판 기획 및 상담.
- 국내도서 아동도서의 기획 및 집필.
- 번역 / 영어 · 일어 · 독어 소설 및 비소설 번역.

글이랑

서울시 종로구 송인2동 482번지 은혜빌딩 3층
전화: (02) 929-1025, 1026 팩스: (02) 927-9066